



양돈농가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경영전략(3)

〈지난호 109쪽에 이어〉

지난 12월호에서는 제3단계 양돈경영농가의 경영분석을 위한 재무제표 분석의 개념 및 용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양돈경영농가의 일정시점에 있어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일람표라 할 수 대차대조표와 양돈경영농가가 양돈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 채권, 그리고 유무형의 권리와 같은 경제적 자원의 개념인 자산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였다.

지금까지는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계정”에 해당하는 “자산”의 모든 계정 과목을 살펴보았다. 양돈경영농가의 경영분석을 위한 재무제표의 연구를 처음하는 양돈농가들은 다소 생소하고 벅찬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번 과정만 잘 소화하면, 그 어렵다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돈경영농가의 독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대변계정”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본”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고 쉽게 정리해 보겠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부채+자본”이라 하였다. 즉, “자산”에 속하는 그 어떤 계정항목도 반드시 “부채” 또는 “자본”에서 자금을 빌려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타인자본(他人資本)이라고 하며, “자본”은 자기자본(自己資本)이라고 한다.



김 성 우

㈜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경영지도부장, 경제학박사

2. 부채(負債, Liability)

부채는 양돈경영을 하기 위해서 토지구입자금, 설비자금, 사료비 및약품비와 같은 축산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농협이나 축

협, 그리고 개인 등으로부터 외상구입 및 대출을 받아서 유통하거나 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부채의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양돈경영능가가 돼지를 생산한 후 출하하여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차입처로 부터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의무가 성립되며,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부채는 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기준으로 지급기일에 따라 1년 이내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와 장기부채(長期負債, Long Term Liabilities)로 구분한다.

유동부채	계정항목: 외상매입금(Account Payable-Trade)
	지급어음(Note&Bills Payable)
	단기차입금(Short-term Debts)
	미지급경비(Accrued Expenses)
	기 타(Other Current Liabilities)
장기부채	계정항목: 장기차입금(Long-term Debts)
	기타차입금(Other Fixed Liabilities)

1)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

일반적으로 양돈경영능가들이 사료대금이 나 약품비 등과 같은 상거래(商去來)에서 발생하는 양돈경영에 있어서 채무관계가 대차대조표 작성일 다음날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료회사나 약품회사로부터 외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입금(Account Payable-Trade), 돈사의 시설이나 사료 및 약품 등의 원재료 등을 구매하고 구입처 및 시설처에 지급한 어음 가운데 지급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지급어음(Note & Bills Payable)이라 하며,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1년 이내에 상환할 것을 약정한 축산경영자금과 같은 단기차입금(Short-term Debts), 양돈경영에 있어서 이미 발생한 비용 가운데 아직까지 미지급한 이자, 보험료, 수수료,

“자산=부채+자본”이라 하였다. 즉, “자산”에 속하는 그 어떤 계정항목도 반드시 “부채” 또는 “자본”에서 자금을 빌려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타인자본(他人資本)이라고 하며, “자본”은 자기자본(自己資本)이라고 한다.

료, 임차료와 같은 미지급경비(Accrued Expenses) 그리고 위의 각 과목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동부채를 기타의 유동부채(Other Current Liabilities)라 한다.

2) 장기부채(長期負債(고정부채), Long-term & Fixed Liabilities)

장기부채를 고정부채(固定負債, Fixed Liabilities)라 표현하기도 하며, 대차대조표 작성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장기성의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들이 포함된다.

농협이나 축협으로부터 정책자금과 같은 1년 이후에 상환하게 되어 있는 각종 차입금을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 Long-term Debts)이라 하며, 장기부채 이외에 지급기일이 1년 이상인 부채를 기타차입금(Other Fixed Liabilities)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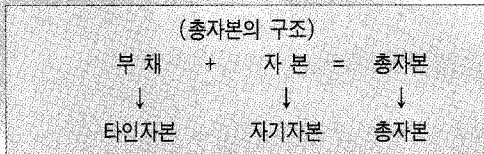
3. 자본(資本, Capital)

양돈경영능가들은 대부분 양돈경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개 자기자산으로 양돈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자본(資本)과 타인자본(負債)을 같이 이용하여 양돈경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자본(資本, Capital)은 양돈경영을 하기 위해 출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즉, 양돈경영능가의 순재산

(純財産, Net Worth)을 말하며, 등식으로는 양돈경영농가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면 양돈경영농가의 순재산(자본)이 된다. 등식으로 설명하면 (순재산(자본) = 총자산 - 총부채)로 구성된다.

한편, “부채”가 타인자본(他人資本)이라고 하면, “자본”은 자기자본(自己資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채 및 자본총계”는 일반적으로 “총자본(總資本)”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1) 자본금(資本金, Capital Stocks)

자본금은 양돈경영농가가 양돈경영사업 개시와 동시에 양돈경영주가 투자한 금액이며, 후일 자본을 증자하거나 감자를 하지 않은 이상 이 금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2)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양돈경영농가가 직접적인 양돈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익을 적립한 잉여금을 유보이익이라 한다. 이때 양돈경영농가가 이익(利益)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반면에 손실(損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결손금으로 당기순손실(當期純損失)로 대치된다.

3)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Net Profit) & 당기순손실(當期純損失, Net Loss)

당기순이익(Net Profit)은 양돈경영농가가 당기간 동안에 사업성과를 올린 최종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세 공제 이전 순이익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돈경기의 불황으로 인

한 양돈가격의 하락과 양돈경영농장의 생산성 저하로 양돈경영농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이는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Net Profit)이 아니라 당기순손실(當期純損失, Net Loss)로 발생된다. 따라서 21세기의 양돈경영농가는 양돈경영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양돈가격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로 유보이익에 가산된다.

지금까지 독자들께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차변)과 “부채와 자본”(대변)에 속하는 모든 계정과목의 개념과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하였다.

이를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12월호 108쪽을 참조하시면 기초 대차대조표의 구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제 뭔가 알겠다는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대차대조표의 구성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차변)		=	부채 및 자본(대변)	
유동자산	306,500,000원		타인자본(유동부채)	60,800,000원
고정자산	1,049,200,000원		타인자본(장기부채)	650,000,000원
기타자산	500,000원		자기자본(자본)	545,400,000원
자산총계	1,356,200,000원		부채 및 자본금 총계	1,356,200,000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충남 홍성군 소재 홍성양돈장 사장은 그 동안 직장생활과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자기자본) 오억사천오백사십만원(₩545,400,000)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담보를 제공하고 일부는 신용을 통해 농협이나 축협으로부터 장기성자금인 정책자금(시설자금) 육억오천만원(₩650,000,000)과 단기성 자금인 축산경영자금 육천팔십만원(₩60,800,000)을 타인자본으로 차입하였는데, 홍성양돈장의 사장은 부채 및 자본금 십삼억오천육백이십만원

(₩1,356,200,000)의 양돈경영자본을 조달하여 양돈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대변으로 홍성양돈장의 양돈경영자본은 현재 유동자산인 현금, 외상매출금, 돼지, 사료재고에 삼억육백오십만원(₩306,500,000)과 고정자산인 토지, 축사, 기계 및 기구, 차량에 십억사천구백이십만원(₩1,049,200,000)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전화가 입권 오십만원(₩500,000)을 포함하여 총자산 십삼억오천육백이십만원(₩1,356,200,000)으로 홍성양돈장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차대조표”가 한 양돈경영농가의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핵심자료라

는 것을 독자들께서는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돈경영농가에 있어서 부채 및 자본은 양돈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조달하였는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자산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양돈경영농가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와 함께 재무제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Profit & Loss Statement, P/L)가 과연 무엇인가? 왜 작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고 이해해야 하는가?를 다음 2월호에 연재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양돈**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나라
농축산인의 천국

➔ 뉴질랜드 에서

농장을 하시겠습니까?

www.farminvest.co.nz